

유가 상승에 '원유개미' 好好...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

원유 선물 ETN, 일제히 상승
하반기 석유 수요회복 기대감 ↑

증산압박에 상승 제한 가능성도
WTI선물 투자시 단기전략 유효

원유 선물 상장지수상품(ETP)이 연일 호조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전 세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움직임 속에 나타나는 석유 수요 회복세가 유가 하방경직성을 키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낙관론은 경계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원유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매매를 단기 전략으로 활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 레버리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ETN은 이달 들어 전 거래일까지 13.83% 오름세를 기록했다. 유가 오름세에 따라 WTI 일별 변동률의 2배로 연동되는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도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QV 레버리지 WTI원유선

〈국내 주요 원유 관련 ETP 이달 수익률〉

(14일 기준)

상품명	상승률(%)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선물ETN	13.83
QV 레버리지 WTI원유선물ETN	12.78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ETN(H)	12.31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ETN(H)	12.14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H)	9.33
KODEX WTI원유선물(H)	6.23
대신 WTI원유선물ETN(H)	6.19
미래에셋 원유선물혼합 ETN(H)	6.07
KODEX 미국 S&P 에너지(합성)	5.93
신한 브렌트원유선물 ETN(H)	5.37

물ETN은 12.78% 올랐고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ETN과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ETN은 각각 12.31%, 12.14%씩 상승했다. 대신 WTI원유선물ETN과 KODEX WTI원유선물(H), 미래에셋 원유선물혼합 ETN(H) 등도 6%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원유 관련 ETP를 향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유가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

소(NYMEX)에서 WTI 7월물은 배럴당 1.29달러(1.85%) 오른 70.91에 마감했다.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6월 에너지전망보고서에서 원유 공급 증가가 있지 않는 한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계속된 유가 강제 현상은 하반기 석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서 기인한다. 6-8월은 연중 최대 성수기로 평가되는 데다 석유수출국기구(OPE

C)와 여기 가입되지 않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여전히 완만한 증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말 쯤에는 경제 정상화 움직임으로 원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원유 시장 내 뻣뻣한 수급 전망이 계속 유지되는 중"이라며 "OPEC+의 완만한 증산 기조, 3분기 미국의 성수기, 유럽 바캉스 시즌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유가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 목소리도 크다. OPEC+를 겨냥한 증산 압박이 하반기 유가의 추세적 상승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수기 진입 후 정유시설 가동률 상승은 긍정적이나 원유 재고 감소폭을 압도하는 정유제품 재고 증가, 정제마진 반락은 오히려 석유 수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수빈 연구원 역시 "3분기 미국 성

수기가 끝나고 하반기 말로 갈수록 수급 여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며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도 약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WTI 선물 상품 투자 시 철저히 단기 투자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WTI 선물에 투자하는 ETP는 매달 다음 월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투자 시 현물과 괴리가 커질 수 있어 유가가 필요하다. 만일 꾸준한 유가 상승을 전망한다면 만기 시 롤오버 비용이 있는 선물 상품보다 원유 관련 기업을 담으라는 것이 공통된 조언이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원유 생산 기업의 성과를 추종하는 ETF인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H)도 이달 들어 9.33% 오르며 원유 선물 ETP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 이외에 엑손모빌·셰브론 등 미국 에너지기업에 투자하는 'KODEX 미국 S&P 에너지(합성)'도 5.93% 상승하며 선전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

초기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차원
부담 방지 반환보증서도 미장구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현장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선지급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지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했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현대건설 현장 직원들이 비상사태훈련에 임하고 있다. /현대건설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모든 현장에 전방위적인 안전제도 마련 및 실시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해 안전관리에 힘쓰고 상생하며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 환

경을 확고히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지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베트남 여신전문회사 김치본드' 발행

339억 규모 2년 만기 발행주관 성공

신한금융투자가 국내 증권사 최초로 베트남 여신전문회사의 김치본드 발행을 단독으로 주관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베트남 현지 기업인 미래에셋 파이낸스 컴퍼니(MAFC)의 3000만달러(339억원) 규모 2년 만기 김치본드 발행 주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김치본드 발행회사인 MAFC는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100%로 설립된 베트남 여신전문회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하며 베트남 소비자금융업 5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달의 단독 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다수의 동남아시아 여전문업의

취급 트랙레코드를 기반으로 베트남 현지 법인과 함께 MAFC에 자금조달 방법을 제안했다. 코로나19 발생 영향으로 김치본드 발행이 연기됐으나, 발행사와 지속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이어왔으며 시장 안정화 시점에 맞춰 김치본드 발행 재추진에 성공했다. 특히 발행 제안부터 조달에 대한 독점적 권한 획득 등을 얻어내며 큰 주목을 받았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밈' 주식 열풍 속 성장주 에어비앤비 1위

해외주식 Click

백신 효과로 여행 재개 기대감에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주목
메타버스 플랫폼 로보록스 '2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인기를 끄는 '밈(Meme) 주식' 인기가 거세다. AMC엔터테인먼트와 게임스톱 등 기존 밈 주식 종목에 이어 클로버헬스인베스트먼트와 웬디스 등 새로운 밈 주식을 발굴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반면 금리 상승을 의식한 상장지수펀드(ETF)나 에어비앤비, 로보록스 등 성장주로 분류되는 종목들도 매수했다. 밈 주식 등 부수적으로 단기적 매매를 하면서도 장기투자용으로 우량한 경기민감주와 성장주도 사들이는 모습이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지난 한 주(7일~14일) 동안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 종목은 에어비앤비(4043만달러)로 집계됐다. 꾸준히 첫 번째 선택지로 지목됐던 테슬라와 AMC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급등주마저 제쳤다.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로 더 많은 여행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자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매수세가 향했다.

한 주 상승폭은 0.16% 수준으로 140달러대 후반 박스권에 갇혀있지만 낮은 진입장벽과 온라인 사용 증가세 등 성장 가능성을 지켜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꼽히는 로보록스가 227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미 지방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 MUB(ISHARES NATIONAL AMTFREE MU)도 1988만달러 어치를 순매수하는 등 지방 국고채 ETF 금리 상승기 대응책으로 꾸준

〈국내투자자 순매수 상위 해외주식 10종목〉
(6월7일~14일, 단위: 달러)

순위	종목명	순매수액
1	에어비앤비	4043만
2	로보록스	2270만
3	iShares NATIONAL AMTFREE MU(MUB)	1988만
4	AMC엔터테인먼트	1973만
5	애플	1943만
6	iShares TIPS Bond ETF (TIP)	1788만
7	알파벳	1743만
8	테슬라	1573만
9	SPDR S&P500(SPY)	1344만
10	보잉	1297만

/한국예탁결제원

히 인기를 끄는 모습도 확인됐다. 장단기 금리차 확대 국면에서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거론되는 iShares TIPS Bond ETF(TIP)도 1788만달러로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다.

밈 주식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여전했다. 같은 기간 최근 2거래일 동안 33.14% 급등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AMC엔터테인먼트를 1973만달러 규모로 사들였고, 블랙베리(589만달러), 게임스톱(376만달러) 등 다른 밈 주식도 순매수 상위 50위 안에 포진했다.

기존에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 역시 순매수 상위권에 자리했다. 애플(1943만달러)과 알파벳(1743만달러), 테슬라(1573만달러)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DR S&P500'(SPY·1344만달러)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시장에서는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정 추정치 변화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송태화 기자